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非賣品

七世祖 兵曹參議公(휘:潐) 事蹟



▲ 참의공 묘소

七世祖는 蔭職으로 통정대부병조참의(通政大夫兵曹參議)를 역임하신 휘는 린(潐)인바 선덕계축(宣德癸丑) 世宗15年(1433)에 출생하시고 홍치경술(弘治庚戌) 成宗21年(1490)에 별세하시니 향년이 58세 이시다.

夫人은 慶州李氏인데 부친의 휘는 孝林이며 관직은 大護軍이고, 조부의 휘는 休(携)이니 漢城尹이시고, 증조의 휘는 誠中이시며, 외조는 관직이 奉教(奉敎)요, 관향(貫鄉)이 무송(茂松)이며, 성명은 윤자견(尹自堅)이시다. 부인의 기일(忌日)은 4월 17日이며 묘소는 양주군 외송산 시비곡(楊州郡 外松山柴比谷)에 계신바 兩位분 상하분(上下墳)으로 간좌(艮坐)이시며, 床石石人 望柱石 香明臺가있고 분형(墳形)은 말갈기 형이다.

兵難後의 公의 묘소와 그 아들 찬성공(贊成公)묘를 失傳 했더니 부사 정휘(府使:挺彙)씨가 송산유씨가(宋山柳氏家)에 장가를 들어 유씨가에서 동래유전어(洞內流轉語)를 듣고 비로서 묘를 찾았으나 공묘의 갈석(碣石)은 없어지고 50보 근처에 崔氏의 暗葬묘가 있었으니 公묘의 碣石이 없어진 것은 최씨 소행인 듯 하며 묘를 찾을 때 소개인이 사실전부를 실토하지 않아 墓道의 石

物도 없어지고 의적(懿蹟:事蹟)도 전하지 못하니 애통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後夫人은 李氏인데 청주망족(淸州望族:有名族)이신바 증조의 휘는 거이(居易)요, 관직은 영의정이시고 조부의 휘는 伯臣이요, 관직은 울산첨절제사(蔚山僉節制使)이다. 효(孝:父) 휘는 길(佺)이며 종친부전참사록사(宗親府典籤司錄事)이시며 비(비:母)는 南原 梁氏이신바 金海府使 思貴의 따님이다.

후부인은 宣德乙卯(1435) 5월 16일에 출생하시고 兵曹參議 휘 린(潐)의 계실(繼室)이 되어 22년 간을 금슬 좋게 동거하시다가 弘治庚戌年에 참의공이 후부인 보다 먼저 서거하셨는데 이때 후부인께서 초상(初喪)을 치르시되 예를 다하시고 諸孫을 무애(撫愛)하시기를 親所生 같이하셨다.

나의 아버지이신 進士公 휘 간(幹)은 참의공의 장손으로서 강보에 쌓여 자라셨으며 甲子年에 휘 幹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별세하시니 후부인 李氏께서 슬픔이 지나쳐 피눈물이 나오 기절했다가 소생하였다.

나 宗元도 출생 3일만에 어머니가 별세하셨는데 그때도 후부인이 나를 불상히 여기시고 몸에 품고 기르셨으



▲ 묘표석

며 나의 아들 영(荅)도 또한 후부인의 양육(養恤)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문호를 회복하여 빛낼 것이라 하더니 일찍 文科에 급제하여 지금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으니 그 先見之明이 이와 같도다.

후부인은 천성이 정직하고 과감하여 행동이 예법을 따르고 시집오셔서 선대제례(先代祭禮)를 지성으로 받들고 家道가 숙정(肅定)하니 척족(戚族)이 화목하며 경사(經史)에 능통하시었다. 또 書史도 해석할 수 있었으며 聖賢의 본받을법과 자손을 위하는 규범 그리고 자인효례(慈仁孝禮)가 한결같이 성의에서 나왔기로 듣는 자가 모두 칭찬했다. 正德辛巳年(1521) 8월 초2일에 질환으로 별세하시니 향년이 87세요 무후하니 애통하도다.

참의공과 前夫人묘는 楊州松山里에 계시다 근방에 장례 할만한 묘지가 없어서 합장을 하지 못하고, 이 해 10월에 파주 회곡리(坡州 灰谷里) 간좌(艮坐)의 시아버지 青松府院君恭肅公묘 동쪽에 장례 하였다.

嘉靖24年 乙巳年(1545)8月 日에 曾孫 通訓大夫 行 平丘道察訪 沈宗元이 삼가 씀

大同世譜 예약 및 配送에 관한 건

一. 大同譜 예약

대동본은 예약분 외에 餘分으로 인쇄한 七百질 중 현재 여분이 二百여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수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책대금: 二十二萬원)

二. 譜冊 예약 만료기간 설정

예약은하고 잔금 納入이 되지 않아 보관되어있는 帙수가 七百여질에 달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입찰이 못 됩니다 찾아갈 수 있는 기한을 설정 하였습니다.

마감기한: 二〇〇三年 六月 三十日

三. 보책 引受가 지연될 時

보책 예약은 하였으나 아직 인수를 하지 못하였거나 일 정기간 지연될 것이라 생각되는 부의 일단 그 상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會에서는 그 현황 파악이 필요한 때입니다.

四. 配送중 발생한 오류 通보 요망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는 부의 즉시 大會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잔금납부는 하였는데 보책을 아직 받지 못한 분
2. 신청질주 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
3. 보책이 부분적으로 바뀌어 配送된 분
이상과 같이 고고하오니 착오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二〇〇二年 十一月 二十日

青松沈氏 大宗會
大同世譜刊行委員會 會長 沈明求

■ 연락처: 〇二-二三三七-七八五七-三三六三-七八九九

■ 팩 스: 〇二-二三三九-七七五五

대동본도 申請처

농 협 을지로 4 가지점 〇八〇〇-一一七九三三-四

우체국 () 〇一〇四七-〇一〇〇二六九

편집자: 김 푸 나

알림

十三 相丞의 事蹟(神道碑文) 연재

斗室相公(諱:象奎) 諡狀 ⑤

임오년에 예조판서가 되고 또 호조로 옮겨 시정(時政)에서 경비를 크게 줄이는 폐단과 대군, 군, 공주, 응주의 궁전에서 국제(國制)를 초월하여 면세(免稅)하는 것을 제재(制裁)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임금이 혜당(惠堂)·선해청제조, 대동당상(大東堂上)과 주당(籌堂)·비변사당상(備邊司堂上)으로 더불어 면세의 대(代)가 끝난 것을 조사하여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하니 공이 물러가서 그 사실을 조사하여 올리니 감해진 것이 거의 다섯결(結)이나 되었다. 계미년에 수빈(綏嬪) 장례도감당상(葬禮都監堂上)에 차임되어 시로를 청하는 글을 지어 올렸고 또 효의왕후(孝懿王后) 부묘도감(拊廟都監) 당상에 차임되었다.

이 때 개성유수(開城留守)가 세금 천오백결을 감해 달라고 요청함에 공이 경법(經法)을 근거로 불허(不許)하니 조정에서 논의하여 감해주자 공이 드디어 인책(引責) 사임하고 공조판서에 임명되었으며 갑신년에 검교와 제학에 차임되었고 을유년에 이조판서와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十월에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니 공이 정승의 물망에 오른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처음으로 임명되자 조야(朝野)가 사모하여 우러러 보았다.

처음으로 사천(七)백여마디의 말이 실린 책자를 내놓았으니 제일 먼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도를 논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이 백성을 낳아 임금을 세워 기르니 이것은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니 임금을 위하여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대를 이은 임금이 있어서는 이 백성은 또 모두 그 조상의 자손을 나에게 부탁하며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부터 성철(聖哲)한 임금은 하늘이 백성을 위하여 임금 세운 것을 알며 천심(天心)이 매우 인자하여 백성 사랑할 줄을 알아 반드시 하늘을 받들어 백성을 기르는 것이니 즉 서전(書傳)에 이른바 오직 하늘

은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은 하늘을 받든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역(周易) 손익(損益)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반복(反復)하고 근본은 굳게 나라는 편안하게 하는 의에 정성을 다하고 민폐(民弊)를 서울에서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배의 어려움부터 외읍(外邑)의 빈곤(貧困)하여 고할데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다 진술하여 이르기까지 이 백성이 위로 받드는 분은 모두 전하(殿下)이니 백성이 전하 우러러 보기를 천지(天地)와 같이 하고 전하 바라보기를 부모와 같이하니 지금 백성 기르는 것이 이와같이 허술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의 임무가 백성의 일인데 능히 백성을 기르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학대하니 그 학대한 것이 비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나의 임무는 백성의 일을 위하는 것이니 그 내가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조사하여 살피는 신하도 있고 죄상(罪狀)을 조사하여 탄핵하지 아니하여 풀릴것 없이 멋대로 나간다면 또한 내가 알고도 놓아준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이 영특한 사람은 감히 원망하지 않으며 지금이 어리석은 사람은 감히 원망하니 감히 원망하는 것과 원망하지 않는 것은 저도 모두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진실로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임금의 마음을 분발하시고 힘쓰고 힘쓰시어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쓰며 공(功)과 죄(罪)를 분명히 가리고 상벌(賞罰)을 진실하게 하여 정대(正大)하고 공정한 마음을 넓혀 편벽되고 그릇된 사람과의 사귀음을 끊으며 충직하고 의리를 강명(講明)하는 사람과 친근(親近)하여 몸을 삼가고 크게 깨우치는 것으로 통치(統治)하시고 먼저 궁중의 환첩(宦妾)으로 임금을 좌우에서 모시는 무리로부터 하인(下人), 임금을 호위하는 군대, 추주(趨走)·어른이나 존귀한 사람의 앞을 지나갈 때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걸어감)하는 심부름꾼에 이르기까지 모두 충근(忠勤)하고 외신(畏愼)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방자하고 월권(越權)하면 반드시 처벌하며 문지기는 내외(內外)의 구분을 엄격하게 지켜 궁궐에 출입할 때 조심하고 지나는데 가린대를 넘

거다 보지 못하게 하여 옛날 오염된 것을 깨끗이 고치고 일체 숙청(肅淸)하면 이것이 기강(紀綱)을 안에 세우는 것이요 다음은 대신(大臣)이 소신(小臣)을 잘 통솔하여 부지런히 일하게 되면 기강을 위에 세우는 것이며 감사(監司)가 출척(黜陟)·잘못하는 자를 내쫓고 잘하는 자를 올려섬)할줄 알고 수령(守令)이 백성 사랑할 줄을 먼저 하게 되면 기강을 밖에서 세우는 것이고 향당(鄉黨)의 여염(閭閻)집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각 분발하여 화목(和睦)하고 효제(孝悌)하면 기강을 아래까지 세우는 것이니 이것은 임금께서 어떻게 분발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크게 분발하시면 크게 떨치어 정치가 잘 안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보통 분발하시면 보통 기강이 서고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니 그 말이 모두 절실하고 저명(著明)하여 그 때의 시정(施政)에 맞았다. 공의 평소 지론(持論)으로 항상 말하기를 평화스러운 세상에서는 백관(百官)이 모든 번잡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기꺼이 처리하니 이것은 자연의 형세이다. 이 때에 헤아리지 않고 크게 빨리 개혁하고 시설코자 하면 구폐(舊弊)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병폐(病弊)가 도리어 증가할 것이므로 먼저 기강을 세우고 점점 퇴폐 풍속을 고쳐나가는 것만 못하므로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것이라 하였다.

임금이 비답(批答)을 내려 말하기를 올린 글은 오늘 날의 병폐가 아닌 것이 없어 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이고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서에 깊이 감탄(感歎)하였으니 내가 비록 덕이 없으나 그릇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조정에 명하여 이것을 베껴 반포하고 강구시행(講究施行)케 하리라 하였다.

병술년에 여러 도(道)에서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많아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하므로 풀어줄 것을 요청하자 잡범(雜犯) 이하 석방(釋放)된 자가 수천명이 넘었다. 정해년 二월에 익종(翼宗)대왕이 세자(世子)로 있음에 서무(庶務)를 대리로 보게 되어 원임(原任) 여러 대신(大臣)과 함께 같은 자격으로 마주 대하게 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 -

김포종회 3/4분기 이사회개최



회장 심두섭

김포종회는 2002년 9월 10일 김포시 북변동 우식식당에서 임오년 3/4분기 이사회를 가졌다.

30여명의 임원이 한자리에 모여 3개월간 뚝뚝한 덕담을 나누었다. 지난 여름에는 흐리고 비가 자주와서 무더운 날씨는 적었으나 그대신 습기가 많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힘들었다. 원섭 고문이 상배하셨고

서류지 두섭 지당과 박종우의원 지당도 별세하셨다.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빈다.

농사에 있어서 벼는 출수가 늦어진다는데 수확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며 과수는 당도 품질등에 영양이 적지않다. 채소의 직황도 좋지 않으나 평년작 이상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풍 루사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리호 보다도 엄청난 재난을 주었다. 인명손실이 220여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는 5조사천억 원이 넘는다.

피해지역 주민에게 물심양면으로 온정을 베풀어 고통을 줄이는데 앞장서야하겠다. 본종회는 1월 29일에 1/4분기 이사회를 3월 21일에 정기총회를 6월24일

에 2/4분기 이사회를 그리고 이번에 3/4분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분기에는 지방선거(김동식 시장당선)가 있었고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창출하여 애! 대한민국의 하나된 참 모습을 보았으며 통진 향교지 발간으로 우리심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금년에도 중앙절(음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현주소 시향에 본종회 주관으로 참사(參祀)하기로 정하고 대상묘소는 집행부에 일임하였다. 끝으로 외병중에 있던 상필 고문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회의분위기는 더욱 밝았다. 조속히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제공: 김포종회 -

柱 聯

本柱聯은 咸悅二世祖의 齋室인 永慕齋의 앞줄 기둥에 걸려있는 글이며 글을 쓴 년대와 작자는 미상이다.

屹山獻秀如揖如控 우뚝 솟은 산이 빼어났으니 머리속여가 (출사헌주어음어고) 별개 음(揖)하는것 같도다.

金龜靈原維桑老楊 신령스러운 언덕에는 뽕나무와 버드나무 (금귀령원유상노양) 가 서있도다.

彌千萬年德人之望 德人の 무덤은 몇 千萬年이나 영원무궁 (미천만년덕인지영) 하리로다.

呼空種之 하늘에 호소하니 神仙을 내려 보냈도다. (호공종지)

雲歸頭流鶴棲青松 구름은 두류산으로 돌아가고 학은 푸른 소 (운귀두류학사청송) 나무에 깃들었도다.

心月相照清夜相尋 明月처럼 밝은 마음을 맑게 개인 밤에서 (심월상조청야상신) 로 찾았도다.

不受其責永保性命 죄를 짓지 아니하면 영원히 생명을 보전하 (불수기책영보성명) 리로다.



독립운동가 沈燾② (1901~1936)

殉國(月刊)에서

선생은 20세기 첫 해인 1901년 9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에서 출생하였다. 심상정(沈相琫)과 海平윤씨 사이의 3남1녀 가운데 막내아들이었다.

본관은 靑松 호는 金剛生. 백랑(白浪) 등이 있다. 선생의 원래이름은 大燾이나, 熏(薰)이란 필명이 널리 알려졌다. 熏이란 이름은 1926년 동아일보에 영화소설 <탈출>을 연재할 때부터 쓰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계속 그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막내아들로 태어난 선생은 어려서부터 양친의 사랑을 듬뿍받고 자라났다. 남달리 머리가 영민하였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기대 또한 매우 컸다. 선생의 성장과정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 문예활동 당시 동료 문인들과 함께 (우측이 심훈)

1915년 서울 校洞 보통학교를 졸업하면서 당시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들던 경성고등보통학교에 합격하였다. 여기에는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철기 이범석이 재학하고있었고 같이 입학한 동기생들로는 동요 <반달>의 작가 윤극영, 무정부주의 독립운동가로 이름 높은 박열, 그리고 공산주의운동가로 유명한 박헌영 등이 있었다. 감수성이 누구보다 예민했던 선생이 1910년 때 일제의 가혹한 무단통치하에서 이들과 같이 학창생활을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의 학창생활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이들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에 분노하면서 항일 독립운동 의지를 굳혀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침내 선생의 울분은 분출되었다. 경성고보 3학년 때

인 1917년 일본인 수학선생과의 알력으로 백지답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생은 수학 과목의 낙제로 유급을 당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만세시위운동에 앞장섰다. 그러한 사실은 선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에도 잘 나타나있다.

심대섭(심훈)의 60명은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을 선언하고 그 시위운동을 개시함을 듣자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많은 군중과 함께 불온 행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려고 기도하여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위의 조선독립을 선언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수천인의 군중에 참가하여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경성부내의 각 곳을 광분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1919년 3월 1일 오후2시, 사정상 불참한 4인을 제외하고 태화관에 집결한 29인의 민족대표들은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독립선언식은 민족대표들이 이종일이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돌려보고 한용운의 연설에 이어 만세삼창을 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났다. 하지만 탑골(파고다)공원에서는 수천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있다가 2시 30분경 독자적인 독립선언대회를 거행하고 곧 시가지로 몰밀 듯 밀려나가 만세시위를 전개함으로써 3.1운동의 불꽃을 지폈다.

선생은 바로 이러한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 민족대회에 참여하였고 이어 서울 각지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리고 3월 5일 선생은 서울에서 각급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최대의 시위운동인 남대문역(서울역) 만세시위운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다가 만세시위운동과정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었던 것이다. 3.1운동 기간 중 서울에서 전개된 최대규모의 시위운동이 바로 남대문역 만세시위운동이다. 이 만세시위운동은 3.1운동 학생대표였던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강기덕과 연희전문학교 김원벽 등이 주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선생을 비롯한 서울지역의 학생 대부분과 광무황제의 인산을 마치고 귀향하던 지방 유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만여 명에 이른 시위행렬은 인력거를 타고 '대

한독립기'를 앞세운 강기덕과 김원벽을 따라 한 갈래는 남대문 시장부터 한국은행을 거쳐 종로 보신각에, 다른 한 갈래는 남대문부터 대한문 앞과 을지로입구를 거쳐 보신각에 이르렀다. 그리고 보신각에서 다시 하나가되어 부르짖는 시위군중들의 대한독립만세 소리는 지축을 흔들며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 잠재된 한국 민중의 독립욕구를 일깨웠던 것이다.

선생 또한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에 동참하여 민족 독립의 열기를 맘껏 분출하다가 조남천, 손덕기, 최강운 등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선생은 1919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종결 결정을 거쳐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석방되었지만 선생은 이미 미결기간까지 포함하여 8개월 간의 옥고를 치른 뒤였다. 옥중에서도 선생의 민족독립을 향한 결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선생이 투옥중 어머니를 위로하고 조국독립에 대한 결의를 다진 다음과 같은 옥중편지에서도 잘 드러났다. (편지 내용은 전보에 게재)

기미년(1919)겨울 옥고를 치르고 난 나는(심훈) 어색한 청복(淸服)으로 변장을 하고 봉천을 거쳐 북경으로 탈주하였다. 몇 달 동안 그곳에서 두류(逗留)하며 연골(軟骨)에 건디기 어려운 풍상을 겪다가 수삼차 단재(신채호)를 만나 그의 우거(寓居)에서 며칠 저녁 발치 잠을 자면서 가까이 그의 모습을 접하였다. 감명 깊은 그의 말씀도 여기서는 略할 수밖에 없다...

北京서 지내던 때의 추억을 더듬자니 나의 한평생 잊히지 못할 또 한분의 선생님이 생각이 난다.

그는 수년 전 대련(大連)서 70 노구로 쇠창살에 갇혀 이미 고인이 된 우당(이희영)선생이다. 나는 맨 처음 그 어른에게로 소개를 받아서 북경으로 갔었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 보지 못하던 19세의 소년은 우당장(友堂丈)과 그 어른의 영식인 규룡(圭龍)씨의 친절한 접대를 받으며 月餘를 묵었다. 조석으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북만에서 고생하시던 이야기며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는 소식을 거기서 들었는데 선생은 나를 막내아들만치나 귀여워 해주셨다. - 다음호에 계속 -

누군들 늙지 않으랴(上)



부회장 심영구

나이 든 사람이 모인 자리라하면 나 오는 이야기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식 공부시키느라 모아놓은 재산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노쇠와 고독뿐이니 여생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이나 며느리들은 정성껏 부모를 봉양(奉養)함은 물론 다른 노인들까지 없는 살림을 꾸려가면서 공양(供養)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알았다. 비록 험벗고 못 살아도 효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였고 이를 인본(人本)으로 여겼다. 낮 놓고 기억자를 모르며 죽으로 끼니를 이어가던 세월이었건만, 밤이면 부모가 거처하는 방에 들어가 요 밑에 손을 넣어보고 따뜻한가를 확인했고 새벽문안을 드려 편안히 주무셨는지를 살폈다. 노인에게는 명주를 짜 비단옷을 지어 드렸고 육류는 어른이나 잡숫는 것으로 여겼다. 할아버지 진짓상에 앉은 손자들은 색다른 찬에는 수저를 댈 엄두도 못 냈고 고등어자반일망정 어른께서 손수 떼어놓아 주셔야 그것도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겨우 넘겼다.

이렇던 미풍의 세속은 까마득히 실종이 되었다. 세계 각국을 이웃집 드나들 듯 관광을 즐기는 풍요를 구가하며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는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한집에서 노부모를 모시며 섬기는 것은 큰일나는 일로만 여긴다. 살 길이 막막한 부모를 나 몰라라 버려둔채 제각기 분가

를 해서 저희들끼리 사는 것을 당연한 듯 알고 있다.

"어느 시어머니는 다이아반지 같은 온갖 패물을 가지고 있다가 며느리가 보이면 깜짝 놀라 감추더라나. 푸대접하던 며느리들이 이를 본 뒤부터는 서로 시새워 잘 모시더라요. 노인이 숨지자 눈도 감기 전에 그 패물을 찾아보니 말짱 가짜라더군. 어쨌건 그 가짜 덕에 죽는 날까지 구박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하니가 다른 친구 왈.



"뭘, 나 아는 영감도 그랬는데 상처를 하고 할 수 없이 며느리한테 얹혀 사는데 그들이 보며는 은행통장을 펼쳐 보다가 얼른 감추곤 했다지 뭐야. 비자금이 꽤나 많았는지 통장이 아주 여러 개 었대. 이후부터 대접이 사뭇 달라졌다는군. 그 친구 임중도 하기 전에 며느리들이 통장부터 퍼보니 천원씩 입금한 계좌가 열몇 개나 되더라요."하면서 간간대소들을 한다. 그 웃음 뒤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듯 자조적인 그늘진 표정들이다. 어찌 됐건 이게 요즈음 돌아가는 세태(世態)가 되었다.

옆에서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던 퇴직한 P교수도 한마디 거든다.

"다른 집 자식은 몰라도 내 아들만은 장가가도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었지. 결혼을 시킨지 얼마 안된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 밤늦게 돌아와 큰절을 넘죽이 하고서는 '결혼하면 분가해 사는 것이 세계적 추세랍니다' 하더군. 그러니 말린다고 될 일이어.

<세계화>라는 데야 어찌겠니 너희들 좋을 대로해야지. - 다음호에 계속 - 대종회 부회장 영구

어머니의 간은 어디 달렸을까



심상섭

가슴을 태워 그 자식 앞을 밝히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버쳐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어머니는 꿈이 꼭 있기에 절 찾아 촛불 켜고 향 사르고 백 배 천 배 무릎에 머미 들어도

피내도 또 피내도 고이는 샘물인양

어머니의 사랑이건만

그 자식 어머니 마음 아는가 모르는가

시험 때마다 어머니 가슴에도 똑같은 수험포 달고 찰밥 먹어 엿 붙여 보내고 나

그 조인 어머니 가슴에 피멍은 얼마나 드렸나

1차, 재수, 삼수 때마다

떨어진 간

어머니의 그 간은 지금쯤 어디 달렸을까

- 沈晃燾 -

<略 歷>

沈 晃 燾

- * 1935年 忠北 忠州出生
-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졸업
- * 삼장대학원졸업
- * 열린문학상 시부문 본상수상 外 多數
- * 전쟁문학회이사
- * 문학공간작가회 명예회장
- * 시집<어둠 밝고 하늘바라보니> <인은 것 잃은것>등 다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本 大宗會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인터넷을 開設하고 여러가지 宗會消息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작단계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가 미미한 편이나 앞으로는 大宗會의 모든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려 여러 일가 분에게 직접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것이며 그 외 점차적으로 종회에서 발행한 각종 宗報와 事蹟등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利用 바랍니다.

- 문화부 -

1. 홈페이지 주소

http://www.cheongsongsim.or.kr

◆대동세보 찾아보기

◆주의사항

2. 등록내용

* 대동회소개

* 뿌리탐구

* 공지사항

◆대동세보 발간소식

3. 당부사항

派/지역종회 모임이 있거나 임원개선이 있으면 대동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故 沈炯澈 義人の 殉職을 哀悼하며 !

故 沈炯澈은 항해사로 2001년 1월15일 거제 남너도 5마일 海上에서 SK.유조선 폭발사고로 순직하였으며, 2001年 9月 3日 國務總理室 행정심판에서 의사자로 확정되었다. 심경철 母校인 해양대학교 동창회에서는 고 심경철의 追慕事業會를 구성하고, "바다소년 심경철"이란 제목의 記念冊字를 내었는데 다음은 심경철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아버지가 쓴 글이다. 심경철은 火葬되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51-9 에 소재한 : 벽제 경은낙원에 안치되어있다.

- 문화부 -

사랑하는 경찰에게



그동안 잘 지내고 있겠지.

세상에 태어나 20년의 인연을 맺고 정을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해 하던 날들은 이제 이승과 저

故 심경철 승 갈림길에서 마음 아파하며 보내야 할 시간이 오고 있구나.

20년 만에 가장 추웠던 2001년 1월 15일 너의 비보를 접하며, 흑시나 하며 부산으로 내려가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께 제신다면 착한 너를 그렇게 데려가지는 않을 거라 믿어보았지만 부산해동병원 영안실에 싸늘한 시신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너를 보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 어찌 말로 다 하겠나. 목포해대 통신학과를 졸업하고 배를 타지 않아도 되는데 경험도 쌓고 사나이로서 한번쯤 도전해 볼만하다며 3년만 타겠다고 하여 너에게 허락했던 아버지의 심정은 후회뿐이구나 2개월 여를 남겨두고 발생한 SK해운소속 P-하모니 유조선 폭발사고, 15일 울산항을 출발 거제 남너도 5마일 해상에서 원인 모를 폭발사고로 결국 9명의 고귀한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지. 5,500톤급 배는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2차폭발과 동시에 침몰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구명장비 역시 화재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결국 16명의 선원 중 4명은 폭발 시 희생되었고, 나머지 12명은 각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으나 구명조끼도 없고 수영도 하지 못하는 2명의 실기생과 선장이 함께 있었으며 그로부

터 5m정도 떨어진 곳에 네가 있었다고, 라이프링을 가지고 뛰어내리려던 순간 여실기생들이 수영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며 울부짖었고 이때 네가 가지고 있던 생명줄인 라이프링을 실기생바로 앞 바다에 던져주고 너는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중국 LPG선 쪽으로 먼저 수영을 해가다가 결국 사망하고, 라이프링에 의존한 실기생 2명은 40여분만에 중국 배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내용을 접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너 먼저 살고 봐야지 하는 마음이었으나 너보다 어린 실기생에게 자신의 생명줄을 넘겨준 너의 고귀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가슴이 저려드는구나. 너의 의로운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정부를 상대로 의사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자 신청을 하였으며, 주무부인 보건복지부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며 불허판정을 했더구나.

의로운 죽음에 명예를 찾아주고 싶은 심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이겠지. 아버지는 또다시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사고당시 너의 도움을 받았던 영은양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2001년 9월 3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지,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보건복지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결을 하여 너를 의사자로 인정을 했구나. 이 의결서가 복지부로 통보되면 의결내용과 같은 재결을 하게 되고 비로소 너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찰아 그동안 너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내가 수학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해양대학교 선배님, 후배님들

沈영감 심민섭



께서 너의 애석한 죽음을 알리고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터넷상에 많은 글들을 올려 주었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거라.

특히 이 시간까지 캔들러브에 조의 촛불을 밝혀주신 캔들러브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철아 이제 너를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세상에 태어나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났지만 네가 머무는 그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 마음껏 누리며 친구도 많이 사귀며 항상 복되게 살아주었으면 한다. 머지않아 우리 가족 다시 만나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자구나 그때까지 외롭더라도 참고 지내자. 너의 어머니, 동생 늘 생각하며 잘 보살피 주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구나!

- 아버지가 - 2001년 9월 13일

祝 詩

青松沈氏大同世譜

賀雲 沈重熹

青松을 나는 鶴은 天地를 搖動하고
日月은 소리없이千古를 비추니
靑丘에 새날 새아침이 밝든듯 하느구나.

始祖洪(宗)의 밝은 얼이 우리를 품어안고
靑城伯德符의 憂國衷情 거러위에 비쳤으니
岳隱公(元符)의 不事二君 靑史에 永遠하리.

明載의 精誠어린 七百年 靑松譜에
靑龍과 黃龍이 荒浪을 잠재우고
六大洲 五大洋을 거침없이 나누느나.

分裂을 피한분들 大同世譜앞에두고
祖上이런 鴻業 그 자취 높이기려
萬里山河 길을 위해 다시 모여 뭉치리.

二〇〇二年 九月 十七日
靑松沈氏大同世譜를 받아보고

註

靑丘 大韓民國
明載 明求와 載烈의 略으로 正確

萬里山河 高句麗와 夫餘時代의 祖國
江山

掘詩 九天에 불 밝히고 參照바라. 萬里山河를 생각하는 靑松의 執念과 意志는 결코 妄想도 아니고 夢想도 아님을 理解하고 分裂 따위의 卑陋한 所行을 삼가함이 좋을 것이다.

宗 事 消 息

始祖墓所時享奉行

10월 14일(음:9월 9일)

初獻: 正澤 青松	大祝: 華燮 青松
亞獻: 原澤 原州 相稷 水原	執事: 相秀 青松
終獻: 澤 青松	



▲시조묘소



▲중대산소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원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원
原州 都摠制公派宗會	100,000원
好燮 서울	濟酒1병

咸悅二世祖墓所 時享奉行

10월 16일(음:9월 11일)

初獻: 明求 大宗會 會長	大祝: 哲植 華山
亞獻: 榮燮 仁川 原澤 原州	執禮: 相稷 大宗會監事
終獻: 根植 蔚山 金燮 光州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200,000원	禮山 承澤	200,000원
光州 金堂山宗會	300,000원	華山 哲植	100,000원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원		

三世祖青華府院君時享奉行

10월 18일(음:9월 13일)

考位	妣位
初獻: 庚周 安城	光澤 安城
亞獻: 相珩 井邑	承澤 禮山
終獻: 清澤 春川	相直 仁川
大祝: 光澤 安城	庚周 安城
執禮: 相稷 大宗會監事	相稷 大宗會監事



▲청화 부원군 묘소

漣川青城伯秋享奉行

10월 20일(음:9월 15일)

考位	妣位
初獻: 明求 大宗會長	元燮 金浦
亞獻: 原澤 原州	相局 釜山
終獻: 相郁 鐵原	文燮 漣川
大祝: 相珩 井邑	相珩 井邑
執禮: 相稷 大宗會監事	相稷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원	金浦宗會	버스1대
釜山宗會(會長:在德)	300,000원	釜山宗會	버스1대
鐵原宗會	100,000원		
贊求 南楊州	100,000원		
金浦宗會(會長:斗燮)	100,000원		

四世祖青城伯初配位

清州宋氏秋享奉行

10월 22일(음:9월 17일)

4世祖 배위	都摠制公
初獻: 成輔 清州宗會長	敏燮 原州
亞獻: 相春 原州	尙道 全州
終獻: 奎澤 南加佐洞	琦燮
大祝: 寬燮 清州	乙澤 原州
執禮: 相昊 清州	相昊



▲청주산소 (4세조 배위)



▲도총제공(배위 신씨 묘소)

»祭需費誠金 原州 都摠制公派宗會 200,000원



▲배위 김씨 묘소

»祭需費誠金

承澤 禮山	200,000원	奎澤 南加佐洞	100,000원
清澤 春川	100,000원	相珩 井邑	30,000원

安孝公仲秋節祀奉行

9월 21일(음:8월 15일)

初獻: 在安 仁川	大祝: 萬鎭
亞獻: 承渭 城南	執禮: 相稷 宗會總務
終獻: 彥植	



仁壽府尹公秋享奉行

10월 22일(음:9월 17일)

初獻: 晶求 파종회장	大祝: 愚慶 光州
亞獻: 應燮 안효공파종회장	執禮: 載冕 파종회총무
終獻: 道植 울산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원 / 安孝公宗會 버스 1대

良惠公(휘:雋)秋享奉行

10월 25일(음:9월 20일)

考位	配位
初獻: 璋燮 大宗會指導委員	鍾赫 大宗會
亞獻: 承渭 城南	承渭 城南
終獻: 文植 蔚山	仁求 서울
大祝: 愚慶 光州	
執禮: 載冕 派宗會 總務	



通德郎公(휘:儒碩)時享奉行

11월 17일(음:10월 13일)

通德郎公 副摠管公(휘:楹)	
初獻: 鎬榮 善來	*15世 通德郎公(휘:一良)
亞獻: 文圭 昊圭	*16世 童蒙教官(휘:海觀)
終獻: 鎬根 鎬宣	*17世 휘:泰元
大祝: 容圭	同日奉行
執事: 敬燮 仁燮	



忘世亭公(휘:璿)秋享奉行

10월 28일(음:9월 23일)

考位	配位	兵事公
初獻: 晶求 派宗會長	贊求 서울	俊植 남양주
亞獻: 鎮植 光州	德求 아산	相華 일산
終獻: 偵植 용인	寬錫 大宗會	愚慶
大祝: 愚慶 光州	愚慶	哲植
執禮: 載冕 派宗會總務		載冕



贈左贊成(휘:宗忱)秋享奉行

10월 30일(음:9월 25일)

贈左贊成公	贈領議政公(휘:傑)
初獻: 暎求 서울	暎求 서울
亞獻: 正求 용인	相直 인천
終獻: 求亨 서울	正求 용인
大祝: 愚增 대종회	



領議政晚沙相公(휘:之源)秋享奉行

10월 30일(음:9월 25일)

初獻: 晶求 派宗會長	終獻: 載求 서울
亞獻: 鍾赫 大宗會	大祝: 愚增 大宗會



奉翊公(휘:晟)時享奉行

10월 30일(음:9월 25일)

奉翊公	判書公	典書公
初獻: 仁澤	相寅	成泰
亞獻: 一雲	相允	雲澤
終獻: 元澤	相郁	泰奉
大祝: 相夏		
執禮: 相稷 大宗會監事		
執事: 亨澤 相候 / 相有 起燮 / 東浩 재홍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200,000원

舍人公(휘:順門)時享奉行

10월 24일(음:9월 19일)

舍人公	忠惠公	翼孝公
初獻: 永澤	成輔	昌燮
亞獻: 元燮	鉤燮	康燮 相昊
終獻: 在弼	海燮	相勳 佑燮
大祝: 相直 仁川		
執禮: 相稷 大宗會監事		
執事: 在喆 容圭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원 好燮 제주 1병
種福(仁輔)大宗會 100,000원
寬錫大宗會總務 100,000원

修撰公(諱:達源)時享奉行

11월 3일(음:9월 끝 일요일)

判官公	修撰公	감사공(휘:銓)
初獻: 承澤 禮山	種澤 安養	仲根 아산
亞獻: 彥扈 牙山	彥昇 牙山	炯茂 부평
終獻: 中鎭 忠州	榮燮	重鎭 충주
大祝: 炯燦 金浦	炯燦 金浦	彥昇 아산
執禮: 炯甲 金浦	炯戊 仁川	



* 八世祖 衿川公(諱:洞)
* 11世祖 長水公(諱:友善)
* 11世祖 都事公(諱:友仁)同日 時享奉行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원 承澤 禮山 200,000원

進士公(휘:友俊)時享奉行

11월 1일(음:9월 27일)

進士公	副正公(휘:諧)
初獻: 熙萬 牙山	彥鍾 牙山
亞獻: 承澤 禮山	彥扈 牙山
終獻: 載元 抱川	彥昇 牙山
大祝: 彥昇	彥昇
執禮: 仲根	仲根



»祭需費誠金
承澤 禮山 200,000원

恭肅公養父(康主簿公)時享奉行

11월 21일(음:10월 17일)

康主簿公	配位天安全氏
初獻: 永澤 奉享會長	應燮 安孝公會長
亞獻: 龍錫 廣州府尹公派	奎澤 남가좌동
終獻: 李載暎 德水李氏宗中	鉦圭 善山宗會長
大祝: 相直 仁川	
執禮: 相稷 大宗會監事	
執事: 承渭 載哲	



»祭需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원 奎澤 南加佐洞 100,000원
醴泉終會 100,000원 德水李氏(玉山公宗會) 50,000원
好燮 제주 (法酒)1병



九世祖 曉窓公(휘:逢源)時享奉行

11월 5일(음:10월 21일)

曉窓公	一松公
初獻: 彰來 派宗會長	彰來
亞獻: 昌燮 金浦	載烈 大宗會
終獻: 重鎭 忠州	鳳來 提川
大祝: 相直 仁川	



»祭需費誠金 / 好燮 제주 1병
* 10世祖 正字公 (휘:鍵)
* 11世祖 僉正公 (휘:昌壽)
* 12世祖 溫陽公 (휘:昶)
* 12世祖 副總管公 (휘:旭)
* 13世祖 執義公 (휘:儒行)
* 16世祖 兵曹正郎公 (휘:周觀)
同日時享奉行

七世祖判官公(휘:浚)時享奉行

11월 10일(음:10월 첫일요일)

初獻: 相鎬 派宗會長
亞獻: 承渭 曉窓公派宗會 副會長
終獻: 相鶴 華城
大祝: 相直 남서울 宗會長
執事: 在燮 奉燮



»祭需費誠金
信川公派春川宗會 100,000원
沈好燮 祭酒(法酒) 1병
* 8世祖 敦寧府都正公 (휘:順道)
* 9世祖 戶曹參議公 (휘:巨源)
* 15世祖 戶曹參判公 (휘:若澗)
* 16世祖 通德郎公 (휘:儼)
* 17世祖 휘:樂賢
同日時享奉行

十二世祖通德郎公(휘:譚)時享奉行

11월 10일(음:10월 첫일요일)

通德郎公	齋室
初獻: 將燮 서울	廣植 청주
亞獻: 俊植 서울	廷根 淸州
終獻: 東植 鎭川	載京 서울
大祝: 載烈 서울	
執事: 相學 서울	
廷根 淸州	



* 13世祖 監察公 (휘:光津)
* 14世祖 通德郎公 (휘:樺)
* 15世祖 휘:得弼
同日時享奉行

통정대부 수 광주부윤 심공행장 ⑤

임금이 새로 등극하여 모든 죄수를 석방할세 府堂上 尹絳 蔡裕後 權 등이 다시 公의 감형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드리지 않았다. 庚子年 가을 임금이 능을 참배하고 돌아올때 公의 맏아들 若河등이 임금에게 글을 올렸으나 역시 물리쳤다.

辛丑年 四月 한밤이 오래 계속되자 임금의 특명으로 죄수들의 죄안을 다시 심사할세 副提學 俞槩公이 公의 무죄를 말하여 이르기 "신이 許積 鄭知和의 말을 들으니 沈某의 일은 극히 원통 하오며 그 위인이 장점이 많으니 오래도록 버려두어 양된다"고 했다."하였으며 李景奭公이 또 애써 변호하였으며 許積도 또한 자기 잘못의 장계를 올려 진술하였다. 이때 同春 宋浚吉 判義禁 鄭維城, 大司憲 金南重 諸公들이 다 함께 公의 원통함을 전달하였다.

이에 임금이 이르기 "그렇다면 여러경들이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마침내 忠州로 옮겨가 十月에 세자가 탄생한 큰 경사로 인하여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왔다. 이때 筵臣에 간사한 자가 있어 날조 포함하여 또 다시 귀양갔다. 壬寅年 봄에 임금이 公의 사건을 公卿과 臺閣에 다시 물은데 모두가 이르기 "용서해야 된다고 하여 석방되어 돌아왔다."

공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 삼년이었고 귀양살이에 육년을 겪고 돌아오에 독기로 인하여 병을 얻었으나 의기는 오히려 쇠퇴하지 않았다. 전원으로 돌아가 노후를 마치고 자 하였으나 가까운 곳에 갈만한 곳이 없어서 서울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두문집거하면서 외부와의 왕래를 끊었다. 공이 앞 뒤로 자녀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십여명의 참상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감정을 억제하고 이치로 소견하였다.

丙申年 三月 二十四日 부인이 또 적소에서 얻은 병으로 별세할세 아들은 다만 若澗만이 남아있었으나 어려서 장사를 치를 수 없었다. 이에 공이 몸소 영구를 부호하고 돌아가 장사 하였으며 公도 묵은 병이 점점 위중하여 여러 달 신음하다가 十月 二十六日 마침내 운명하였으니 향년이 六十二歲였다. 병환이 위중할 때 지은 시에 이르기 "평생토록 스스로 奇男子가 되려더니 늙어감에 마침내 陋丈夫를 이루었네, 깊은 치욕 못냈은채 지하로 돌아가니

원통한 기운이 허공을 쏘아보리."라고 하여 듣는 사람들이 전해 외우면서 모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 공이 스스로 죄를 얻고 씻지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임종시에 분부하되 장사를 간소하게 치르고 제사의 예절도 줄이려 하였으며 후사의 처리에도 질서정연하게 지시하여 빠트림이 없었다.

공이 전후처의 두부인이 있었는데 모두 公州錦江 가의 馬首山 묘좌의 두던에 있어 같은 위치로 봉분을 달리하였다. 그런데 전부인의 묘는 자리가 협소하니 함장할 수 없어서 이해 十月 二十九日 마침내 후부인 묘에 합장하였다.

己酉年 여름 임금이 온천에 행차할세 若潢이 글을올려 公의 억울함을 변명하였으니 그 글의 내용이 매우 애절하였다. 마침 그때 趙啓遠의 일가되는 사람이 判金吾(옥사를 주관하는 判義禁府事를 말함)로 있어서 그 글을 석달이 경과하도록 回啓(어떻한 사건에 대하여 임금의 물음에 심의하여 처리방안의 의견을 아뢰는 것)하지 아니함에 임금이 覆啓(四啓와 같은 뜻임)토록 명령한데 判金吾가 그때야 趙啓遠과 일가라는 혐의를 들어 피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若潢의 올린 글의 내용이 어떠한 사건인가 물었다. 이에 대답하기를 "그 아버지의 伸冤을 위한 것으로 오로지 조사의 잘못을 주장하였다."고 할세 정승 鄭太和公이 그 글을보고 애처롭게 여겨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극구 전달하였다. 이에 임금이 차관으로 하여금 回啓하도록하여 거의 伸冤될 지경에 이르렀더니 公을 좋아하지 않은 자가 있어 公의 다른일을 갖고 말하여 또 告身(복직 사령장)을 빼앗겼다가 이해 겨울 연말에 비로소 復官恕容의 왕명이 내려졌으나 公에게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公은 神采가 뛰어났고 도량이 넓었으며 知慮가 깊고 言論이 激昂하였다. 큰키 풍후한 용모에 眉目이 수려하고 수염이 아름다워 바라보면 활달하고 흰칠한 사람임을 가이알 수 있었다. 아버지 應教公은 事功으로써 자신의 임무로 삼았고 숙부 靑雲君 命世는 氣가 고상하였으며 季父 吏曹佐郎 熙世는 故事를 잘 알았다. 공이 이러한 환경에서 평소 보고 들은 바가 많아 뜻한 바 학업이 일찍 이루어졌다. 그래서 公을본 선배들이 모두 큰 그릇으로 인

정하였으며 公도 또한 서책에 익매인 선비로 자처하지 않았다. 孝友는 타고난 천성이라 양친의 상고를 당하여서는 앞 뒤로 육년을 시묘하면서 조석 제전을 몸소 받들었으며 평생토록 하루같이 슬퍼하고 사모하였다. 서모를 대함에도 역시 예절을 다 하였다. 젊은시절 객지에서 친상을 당하여 장사에 관한 예절에 유감된 일이 있었다 하여 모든 상고에 있어서 수의와 관곽, 장사와 제사등 절을 한결같이 검소 간약하게 하였다.

伯兄이 요절할세 임중에 제반 가사를 公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공이 형수를 받들며 매우 근엄하였으며 그 가사를 다스려줌에 자신의 집보다 더 알뜰이 보살피 주었고 의로운 조카와 질녀들을 잘 길러주어 때 맞게 혼인을 시켜 주었으니 남들이 아들인지 조카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으며 집안이 언제나 화기애애 하였다. 仲兄 判事公이 公과 함께 병을얻을세 자신의 병은 잊어버리고 중형의 병을 염려하여 밤이면 잠을 자지 않았으며 낮이면 매일五六차례 문병하다가 公의 병이 위독해지고 중형이 먼저 서거할세 집사람들이 公에게 알리지 않았더니 公이 병상에서 몸을 오구리고 누워서 일어날 기운이 없으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시켜 중씨의 소식을 끊임없이 물어 매양 속였다니 조금 있다가 공이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울면서 이르기 "우리 형님이 살아있을 이치가 없을 것 같다."하고 여러번 스스로 땅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하다가 조금 뒤에 公도 또한 서거하여 형제간에 죽음에 이르러서도 서로 알지 못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몹시 애처롭게 여겼다.

본래 가세가 부유하였으나 분가할 때 형과 여동생 및 서동생에 가지미루어 주고 자신은 극히 적게 취하면서 이르기 "나는 비록 적으나 이것으로도 분수에 따라 먹고 입을 수 있다."고 하였다. 취향이 세속에서 이상한 것을 숭상하여 의복과 용품은 언제나 소박하여 비단옷은 없는 것 같았으며 습성이 술을 잘 마셨으나 절대로 손수 술을 따르지 않았다.

평생에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고 특히 피를 내서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고금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논하기를 좋아하되 충신 효자 칭아한 선비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것을 더욱 즐겁게 여겼다. 성품이 또 남에게 주는것을 좋아하여 매양 수입이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흠여 주어 서서 갓을 벗어주고 말 멧애를 벗겨주어도 아무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 다음호에 계속 -

受惠층이 施惠층 되자



부회장 심갑보

16년전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입대시키고 훈련소 정문근처에 있던 옛날 훈련병 면회소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하염없는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로부터 30여년전 필자가 논산후련소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매주 일요일마다 야간열차를 타고 대구에서 면회를 오시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각이 물 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1957년 8월 필자는 학보병(일명 학적보유병)으로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뒤 중부전선 최전방 고지에 배속이 되었다.

영하 20-30도의 어두운 밤 혹한 속에서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초소근무를 하고 때로는 行軍兵으로 차출되어 강훈련을 받기도 하면서 군복무를 마쳤다. 그 당시엔 군량미가 최일선 초소까지 오는 도중 이리 때이고 저리 때여 사병들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항상 배가 고팠다.

그래도 나는 군대에 온 것을 한번도 후회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다. 제대 후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때의 군대생활이 가장 값진 인생체험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주변머리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1968년 대구에서 서울로 이

사온 후 1995년 일산신도시로 이사할 때까지 27년간 단 한번도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없다.

작은 집이라도 내집을 가진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면서 내 직무에만 매달리다 보니 강남이다 부동산이다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주택은 거주 수단일 뿐 재화의 창출은 경영활동과 기업성장을 통해서만 얻어야 한다는 고지식한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 필자의 회사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생산한 일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쟁업체들이 부가세와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있어 탈세를 하지 않고는 경쟁을 할 수 없었다.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면 해당 제품의 생산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다는 창업주(현재회장)의 뜻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조업을 중단했을 때에도 나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대부분의 이 나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그런 상식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긴 설명을 하느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지난 두 번에 걸친 국무총리 인준 관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내가 바보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냐는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전직 대학총장도 언론계의 젊은 경영자도 도덕적 흠결 때문에 총리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이는 비단 필자 뿐 만이겠는가?

위장전입, 재산등록 누락, 각종세금 탈루, 부동산 취득의 불투명, 자녀의 국적문제 회사재산을 담보로 한 개인대출 등이 그 흠결의 내용이었다. 지난 99년 10월에 발표된

공직자 병역사항공개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287명중 병역면제자가 81명으로 전체의 28.2%에 달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면제비율 4%와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수혜층(受惠層)이 반드시 은혜를 갚고 베푸는 시혜층(施惠層)이 된다고 한다. 우리는 영국의 명문 이튼스쿨(Eton School)의 교정이 전사자들의 무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조국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최고의 수혜층인 그 학교의 졸업생들은 자진해서 입대하여 최고의 희생자가 되어 주었다. 1,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학교졸업생 5000여명이 전선에서 희생을 당하였다. 영국이 한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이면에는 이와 같이 수혜층의 숭선수범 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해진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희생을 가장 적게 감내하려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은 돈이 없고 뒤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미루고 쉽고 좋은 일만 차지하려 한다.

나는 "우리의 지도층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잃으면 국정은 난맥상이 되고 국가는 난파선이 된다. 지향(志向)도 없고 정향(定向)도 없고 좌표(座標)도 없고 지표(指標)도 없는 사회가 된다"고 지적한 송복 연세대 교수의 의견에 전적인 동감을 표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정치 사회 지도자들부터 바르게 살아야한다. 경영자들은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바르게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취급을 받지않고 존경의 대상이 되며 정도를 걷는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중회 부회장 심갑보

恭肅公養父(康主簿公)時享奉行

信川 康主簿公(휘:居敏)은 姓氏가 靑松沈氏가 아니면서도 靑松沈氏門中에서 時享을 奉行하고있는 유일한 他姓氏로써 金年에도 어김없이 陰10月 17日에는 善山땅 公의 墓前에서 경건하고 正성스럽게 時享이 奉行되었다.

서울에서는 奉享會長인 永澤씨 外17명과 水原에서는 安孝公派 應變會長을 비롯한 13명이 서울에서 준비한 버스로 함께 同行하였으며 現地에서는 善山の 廣州府尹公派宗會와 善山 地域宗會, 德水李氏宗中, 信川康氏宗中에서 약40여명이 참여하여 參祀人員은 總70여명에 이르렀다. 도리켜 보건되 恭肅公께서는 아버님인 安孝公께서 被禍 되셨을 당시 유모의 등에 업혀 정처 없이 피난길에 방황하셨으며 善山땅에 이르러 康主簿公을 만나 養子로 입적이 되어 비로소 安住 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天佑神助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훗날 領相의 자리에 까지 오르는 榮光을 입어 靑松沈氏門中에 三代政家門이란 名門을 남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康主簿公의 평소의 엄격한 가르치심이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로써 그 惠恩이 千歲를 두고 白骨難忘이 오이다.

五百年을 이어온 報恩의 奉行行事는 앞으로도 間斷없이 이어져 나갈 것이지만 이를 두고 現地의 敎育界에선 이곳을 忠孝의 場으로 지정하고 初,中,高生에 忠孝를 가르치고 있으며 龜尾市文化院에서는 恭肅公께서 領議政의 자리를 사양하면서까지 3년의 侍墓살이를 하였다하여 侍墓岩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하니 모두가 감개무량한 일이다.

2002년 11월 22일 - 文化部 -

김포종회 청성백묘소 추향 참례기

2002년 10월20일(음9월15일)김포종회에서 40여명의 종인이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번지소재 4세조 청성백묘소 추기제향에 참례하였다.

본 종회주관으로는 98년도 추향에 이어 이번이 4년만의 행사이다. 당일 09:00시에 김포시 직행버스터미널에서 전세버스로 출발하여 김포대교 자유로 파주시 적성면 연천군 백학면을 경유 11:00 묘소에 도착하였다.

제향은 대종회주관으로 전국에서 참여한 130여명의 종인과 함께 엄숙한 분위기에서 봉행하였다. 특히 이번 제향에는 부산에서 전세버스로 약 40여명의 종인이 전날 출발하여 의정부에서 숙박하고 참례하였다.

청성백묘소 초헌관은 관례에 따라 대종회회장이 분정되었고, 배위인천문씨 묘소 초헌은 본종회 원섭고문이 봉행하였다.

제례를 마치고 묘하잔디에서 따스한 햇볕아래 미리 준비하여온 도시락으로 음복례를 마쳤다.

오후에는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세조 공숙공묘소와, 광탄면 마장리 7세조 이경공묘소, 7세조 판관공묘소를 참배하고, 광탄면 분수리 14세조 만사공묘소도 참례하였다. 가을이라 해가 짧아 저녁노을 건너편의 아름다운 김포산야를 조망하면서 귀향을 서둘렀다.

(제공:김포종회)

人 事

- 英現 : 서울여대 사무처장
- 泰燮 : 한국 담배 인삼공사 생산관리부장(수원제조장)
- 永求 : " (영주제조장)
- 揆海 : 경희 의료원 사무부장
- 權輔 : 신한생명 양산 지점장
- 用昌 : 통일부 남북회담 운영부 회담2과장
- 均欽 : 예금 보험공사 총무부 선임 책임역
- 在國 : 한국 투자 신탁증권 이사대우 준법감시인
- 相文 : 광주 광역시 비엔날레 관리부장
- 載鎬 : 안산시 과장급(정수)
- 五澤 : 국무 조정실 총괄 조종관실 기획총괄과장
- 煜基 : 서울지방 국세청 납세과
- 玎燮 : 강남 세무서 세원관리 1과장
- 昌鎭 : 반포 세무서 징세과장
- 愚大 : 서울은행 잠원 지점장

四世祖 齋室建立誠金

靖夷公宗會 500,000원 (37호분)

理 事 會 費

副會長 宜洛	500,000	2002	서울
副會長 載榮	500,000	2002	大田
指導委員 達燮	300,000	2002	서울
指導委員 璋燮	300,000	2002	서울
理 事 光燮	80,000	2001	晉州
理 事 德求	80,000	2001	仁川
理 事 相鴻	80,000	2001	三陟
理 事 永植	80,000	2002	三陟
理 事 載烈	80,000	2002	大宗會
泓植	160,000	2001~2	瑞山
晨求	80,000	2002	春川
柱燮	80,000	2002	晉州
在圭	80,000	2002	晉州
根植	80,000	2002	蔚山
政燮	80,000	2002	安성

第32會 定期總會誠金

大宗會 顧問 榮燮 100,000 인천

寄 贈

修撰公宗會(會長:達燮) 실내 커피자판기 1대 (370,000원)

경찰고문변호사

변호사 沈 漢 堧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빌딩 411호 서울 교대입구 4거리 전화 : (02) 521-0616/523-6116 FAX : (02) 521-0617

宗報 37호에서 誤字訂正

8p 四世祖 齋室建立誠金 中 靖夷公宗會 50,000을 500,000원으로 訂正합니다.

성금감사합니다

起燮	30,000	철원	원식	30,000	천안
근섭	30,000		영식	30,000	대전
吉田	30,000	분당	재경	30,000	광주
學燮	50,000	원주	政燮	20,000	안성
英輔	100,000	길음동	철섭	50,000	온양
성근	50,000	성남	금구	50,000	순천
재원	50,000	부산	永植	50,000	삼척
웅택	30,000	인천	德燮	30,000	김포
상만	30,000	전주	재진	30,000	全州
貴重	50,000	전주	鎰燮	20,000	梁山
光來	20,000	마장동	赫圭	30,000	驪州
德求	20,000	인천	載榮	30,000	富川

四世祖 靑城伯 齋室建立誠金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송금안내

찬조금 또는 중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중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재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011-829-5548

영 祝 에

● 就任

相明:법무부 장관

● 合格

載植: 행정고시 합격

● 훈장수여

玄根: 國民勳章 冬栢章 新灘津高校長

德輔: 황조근정훈장 서울 가동 초등학교장

春子: " 경기도척 초등학교장

司評公派宗會

任員名單

會 長: 석기

總 務: 문수

財 務: 연보

監 事: 석주 응래

運營委員: 인보 석구 영보 만보

응후 규창 석규 응선

경보 석중